사냥개

The Hound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4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Hound" (Weird Tales 1924년 2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Wikisource / Weird Tales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울에 관한 암울한 이야기 괴기 문학의 거장이 쓰다

세인트 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진 시체가 되었다. 그 이유를 아는 이는 나뿐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혹하기에, 나 또한 저와 같은 꼴로 짓이겨질까 두려워 차라리 스스로 머리를 쏴 죽이려 한다. 불빛 하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기괴한 환상의 복도 너머로 형체 없는 검은 복수의 그림자가 휘몰아치며 나를 자멸로 몰아넣고 있다.

하늘이시여, 우리 두 사람을 이토록 끔찍한 운명으로 몰아넣은 그 어리석음과 병적인 집착을 부디 용서하소서! 로맨스와 모험의 즐거움조차 금세 시들해지는, 지루하고 평범한 세상의 일상에 지쳐버린 세인트 존과 나는 파괴적인 권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믿는 모든 미학적, 지적 흐름을 열정적으로 뒤쫓았다. 상징주의의 수수께끼와 라파엘 전파의 황홀경 또한 한때는 우리의 것이었으나, 새로이 찾아온 모든 정취는 즐거운 참신함과 매력을 너무나도 빨리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퇴폐주의자들의 침울한 철학뿐이었다. 우리는 탐구의 깊이를 더하고 그 악마성을 점차 키워나갈 때에만 그 철학에서 강력한 힘을 느꼈다. 보들레르와 위스망스의 작품은 금세 흥미가 바닥났고, 결국 우리에게 남은 자극은 비정상적인 개인적 경험과 모험이라는 더 직접적인 것들뿐이었다. 이러한 끔찍한 정서적 갈증은 결국 우리를 가증스러운 길로 이끌었다. 지금의 공포 속에서도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겨우 입에 올리는 그 길이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만행이자 혐오스러운 행위인 도굴이었다.

우리가 겪은 충격적인 탐험의 세부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 또한 우리가 함께 거처했던 그 거대한 돌집, 하인 하나 없이 외롭게 머물던 그곳에 마련한 이름 없는 박물관에 전시된 끔찍한 전리품들을 부분적으로라도 목록화할 수는 없다. 우리의 박물관은 신성모독적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소였다. 신경질적인 예술가들의 악마 같은 취향을 따라, 우리는 무뎌진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공포와 부패의 우주를 그곳에 모아두었다.

그곳은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이었다. 현무암과 오닉스로 조각된 거대한 날개 달린 악마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기괴한 초록빛과 주황빛을 토해내고 있었으며, 숨겨진 공압관들은 검은 천에 엮인 붉은 시체들의 줄기를 만화경 같은 죽음의 춤으로 뒤흔들었다. 이 관들을 통해 우리는 기분에 따라 원하는 향기를 마음껏 불러들였다. 때로는 창백한 장례식용 백합 향기가, 때로는 왕의 무덤이 있는 동양의 환상적인 신전에서나 날 법한 마약 같은 향연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때로는—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진다!—파헤쳐진 무덤에서 풍겨 나오는, 영혼을 뒤흔드는 끔찍한 악취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혐오스러운 이 방의 벽면을 따라 고대의 미라가 담긴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박제사의 기술로 완벽하게 속을 채우고 가공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 아름답고 생생한 모습의 시신들이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에서 훔쳐 온 묘비들도 함께 놓여 있었다. 곳곳에 파인 벽면의 움푹한 공간에는 온갖 형태의 해골과, 부패의 단계가 제각각인 머리들이 담겨 있었다. 그곳에서

는 유명 귀족의 썩어 문드러진 대머리도 볼 수 있었고, 갓 매장되어 여전히 황금빛 광택이 도는 아이들의 머리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조각상과 그림들이 가득했다. 모두 악마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세인트 존과 내가 직접 작업한 것이었다. 사람의 가죽을 무두질해 만든 잠긴 포트폴리오 안에는, 고야가 그렸으나 차마 세상에 내놓지 못했다고 소문이 돌던,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기괴한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등 구역질 나는 악기들도 있었는데, 세인트 존과 나는 그것들로 때때로 정교하게 병적인, 그리고 악마적이고 섬뜩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곤 했다. 또한 상아로 장식된 수많은 흑단 수납장 안에는 인간의 광기와 비정상적인 집착이 모아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무덤 약탈품들이 잠들어 있었다. 특히 이 약탈품들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기 훨씬 이전에, 그것들을 파괴할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신께 감사할 따름이다.

말할 수 없는 보물들을 수집하기 위해 떠났던 그 약탈적인 여정은 언제나 예술적으로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우리는 천박한 구울이 아니었다. 특정한 기분과 풍경, 환경과 날씨, 계절과 달빛이 갖춰진 조건 아래에서만 움직였다. 우리에게 이 유희는 미적 표현의 가장 정교한 형태였기에, 우리는 그 세부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 결벽증적일 만큼 기술적인 주의를 기울였다. 부적절한 시간이나 어울리지 않는 조명, 혹은 젖은 흙을 다루는 서툰 손길 하나만으로도, 대지가 품은 불길하고 비웃는 듯한 비밀을 파헤칠 때 뒤따르는 그 황홀한 전율은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리곤 했다. 새로운 풍경과 자극적인 조건을 향한 우리의 탐색

은 열병처럼 뜨거웠고 끝이 없었다. 세인트 존은 언제나 앞장섰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은, 그 조롱 섞인 저주받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한 것도 바로 그였다.

우리가 삽을 들고 이 구울의 무덤을 파헤치던 순간이 기억난다. 그리고 그날의 풍경을 떠올리며 우리는 전율하곤 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무덤, 창백하게 지켜보던 달, 끔찍한 그림자들,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 거대한 박쥐들, 고풍스러운 교회, 춤추듯 일렁이던 도깨비불, 역겨운 악취, 나지막이 신음하던 밤바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이 어디선가 들려오던 그 기묘한 울음소리까지. 그 울음소리가 정말 실재하는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말이다.

그러다 우리는 축축한 곰팡이보다 더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그것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탓에, 광물질이 겉면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부식된 직사각형 상자였다. 상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껍고 견고했으나, 워낙 오래되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열어젖힐 수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담긴 것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눈을 떼지 못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물건은 놀라울 정도로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을 죽인 괴물의 턱에 눌려 곳곳이 으스러지긴 했으나, 해골은 놀라울 만큼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길고 튼튼한 치아와, 한때는 우리처럼 시체 썩는 듯한 열기로 번뜩였을 눈 없는 안와를 지닌 그 깨끗하고 하얀 해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관 안에는 기이하고 이국적인 문양의 부적이 놓여 있었는데, 죽은 자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부적에는 날개 달린 사냥개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 혹은 개를 닮은 얼굴을 한 스핑크스의 형상이 기묘하게 정형화되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작은 초록빛 옥 조각을 고대 동양의 양식으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것이었다. 부적의 표정은 극도로 혐오스러웠으며, 죽음과 짐승 같은 야성, 그리고 악의가 동시에 느껴졌다. 부적의 밑단에는 세인트 존과 나 모두 식별할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제작자의 인장처럼 기괴하고 위압적인 해골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부적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 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무덤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전리품은 오직 이 보물뿐이었다. 설령 그 형태가 생소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갈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 물건은 결코 낯설지 않았다. 제정신을 가진 독자라면 알 만한 그 어떤 예술이나 문학 작품과도 거리가 먼 기괴한 형상이었으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광기 어린 아랍인 압둘 알하자드가 쓴 금서, 『네크로노미콘』에서 암시되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중앙아시아의 접근 불가능한 땅, 렝에서 시체를 먹어 치우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소름 끼치는 영혼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그 옛 아랍의 악마학자가 묘사했던 불길한 윤곽을 너무나도 잘 알아볼 수 있었다. 그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 윤곽은 죽은 자를 괴롭히고 갉아먹는 영혼들이 나타내는 모호하고 초자연적인 형상에서 따온 것이었다.

우리는 초록빛 옥으로 된 물건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주인이라 할 만한 자의, 창백하게 질린 채 텅 빈 눈을 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본 뒤, 처음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무덤을 다시 덮었다. 세인트 존의 주머니 속에 훔친 부적을 넣은 채 그 혐오스러운 곳을 서둘러 벗어나던 중, 우리는 박쥐 떼가 방금 우리가 파헤친 땅을 향해 떼 지어 내려가는 것을 본 듯했다. 마치 저주받은 불경한 양식을 찾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가을 달빛이 너무나 희미하고 창백했던 탓에, 그것이 정말 박쥐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네덜란드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항해를 이어가던 중에도 우리는 멀리서 거대한 사냥개가 울부짖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슬프고 창백하게 울부짖고 있었기에, 그 소리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은둔자처럼 지냈다.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황무지 위, 오래된 저택의 방 몇 칸에 틀어박혀 친구도, 하인도 없이 홀로 지냈다. 그래서 방문객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무언가 뒤척이는 듯한 소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문 근처뿐만 아니라 위층과 아래층 창문 주변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한 번은 달빛이 비치는 서재 창문 너머로 거대하고 불투명한 형체가 나타나 빛을 가리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멀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 윙윙거리거나 퍼덕이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확인해 보아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교회

묘지에서 들었던 것 같은 희미하고 먼 울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그 기묘하고도 불안한 환청처럼 말이다.

이제 비취색 부적은 우리 박물관의 전시 공간 안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가끔 그 부적 앞에 기묘한 향이 나는 양초를 피우곤 했다. 우리는 알하즈레드의 『네크로노미콘』을 읽으며 그 부적의 효능과, 부적이 상징하는 대상이 유령의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내용을 접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내용들은 우리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공포가 들이닥쳤다.

19—년 9월 24일 밤, 내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인트 존일 것이라 짐작하고 들어오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웃음소리뿐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든 세인트 존을 깨워 물었으나, 그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나만큼이나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황량한 무어 위로 들려오던 희미하고 먼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공포스러운 현실로 다가온 것은 바로 그날 밤부터였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는 공포와 매혹 속에서 살아갔다. 대개는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적인 흥분 때문에 둘 다 미쳐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버텼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서서히 스며드는 끔찍한 파멸의 희생양이라고 믿는 편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기괴한 현상들은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났다. 외딴 우리 집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악한 존재가 머무는 듯 생동감 있게 꿈틀거렸

고, 바람 부는 황무지 너머로는 밤마다 악마 같은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매일 밤 더욱 커져만 갔다.

10월 29일, 우리는 서재 창문 아래 부드러운 흙 위에서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들은 전례 없는 숫자로, 갈수록 늘어나는 거대 박쥐 떼가 오래된 저택을 괴롭히는 모습만큼이나 당혹스럽고 기이했다.

공포가 정점에 달한 것은 11월 18일이었다. 세인트 존이 음울한 기차역에서 어둠이 내린 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정체 모를 끔찍한 육식 괴물에게 붙잡혀 갈가리 찢기고 만 것이다. 그의 비명 소리가 집까지 들려왔고, 나는 서둘러 그 참혹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날갯짓 소리를 들었고 떠오르는 달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러낸 모호하고 검은 구름 같은 형체를 목격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친구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부적—그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속삭이는 것뿐이었다.

그러고는 그는 짓이겨진 살덩어리가 되어, 아무런 생기 없는 덩어리로 쓰러졌다.

다음 날 자정, 나는 방치된 정원 중 한 곳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생전에 그가 그토록 즐기던 악마적인 의식 중 하나를 그의 시신 위에서 중얼거렸다. 마지막 악마의 문장을 내뱉는 순간, 멀리 황무지 너머에서 거대한 사냥개가 짖어대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달이 떠 있었지

만, 나는 차마 달을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희미한 빛이 감도는 황무지 위로, 거대하고 흐릿한 그림자가 언덕에서 언덕으로 휩쓸듯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나는 떨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온 나는, 안치되어 있던 초록빛 옥 부적 앞에 몸을 굽혀 경악스러운 경의를 표했다.

황량한 벌판 위, 그 오래된 저택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두려워진 나는 이튿날 바로 런던으로 떠났다. 박물관에 있던 불경스러운 수집품들은 모두 불태우고 땅에 묻어버렸으나, 부적만큼은 챙겨 나왔다. 하지만 런던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둠이 내릴 때마다 누군가 기괴한 눈빛으로 나를 훑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빅토리아 엠뱅크먼트를 거닐고 있을 때였다. 물결에 비친 가로등 불빛 위로 검은 형체가 스르르 지나가며 빛을 가렸다. 밤바람보다 더 거센 바람이 내 곁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직감했다. 세인트 존에게 닥쳤던 그 일이 곧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나는 초록빛 비취 부적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네덜란드를 향해 닻을 올렸다. 이 물건을 침묵 속에 잠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어떤 자비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 사냥개가 대체 무엇인지, 왜 나를 뒤쫓아왔는지는 여전히 모호

한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그 짐승의 울부짖음을 처음 들었던 곳이 그 오래된 교회 묘지였고, 세인트 존의 마지막 유언을 포함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사건이 이 저주가 부적을 훔친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로테르담의 한 여관에서 도둑들이 나의 유일한 구원책인 부적을 훔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날 저녁, 울부짖는 소리는 유난히도 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시에서 가장 비열한 구역에서 벌어진 이름 모를 참극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지역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그 어떤 흉악한 범죄보다도 더 끔찍한, 붉은 죽음이 어느 불길한 연립주택을 덮쳤기 때문이다. 지저분한 도둑들의 소굴에서 한 가족 전체가 정체 모를 무언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그 괴물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취한 이들의 소란스러운 외침 너머로, 거대한 사냥개가 내는 듯한 낮고 은은하며 끈질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마침내 나는 다시 그 불길한 교회 묘지에 섰다. 창백한 겨울 달빛은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잎사귀를 다 떨군 나무들은 시들고 서리 맞은 풀밭과 갈라진 석판을 향해 침울하게 늘어져 있었다.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교회는 적대적인 하늘을 향해 비웃는 손가락질을 해대는 듯했다. 얼어붙은 늪과 차가운 바다 너머에서는 밤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짖는 소리는 이제 아주 희미해져 있었다. 내가 예전에 파헤쳤던 그 오래된 무덤에 다가서자 소리는 완전히 멎었다. 무덤 주위를 기묘하게 맴돌며 떠돌던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박쥐 떼가 내가 다가가는 바람에 겁을 먹고 흩어져 버렸다.

내가 왜 그곳으로 향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다.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안에 누워 있는 저 고요하고 하얀 존재를 향해 미친 듯이 횡설수설하며 애원하고 사죄하기 위해서였는지조차 모르겠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나는 내 안의 절박함과 내 의지를 압도하는 외부의 어떤 의지가 뒤섞인 광기에 사로잡혀 반쯤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땅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중간에 기이한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말이다. 차가운 하늘에서 마른 독수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내려앉더니, 내가 삽으로 내리쳐 죽일 때까지 미친 듯이 무덤의 흙을 쪼아댔다. 마침내 나는 썩어가는 직사각형 상자에 도달했고, 눅눅하고 질산 성분이 밴 덮개를 걷어냈다. 이것이 내가 행한 마지막 이성적인 행동이었다.

수백 년 된 그 관 안에는 거대하고 근육질인 박쥐들이 악몽처럼 빽빽하게 뒤엉켜 잠들어 있었고, 그 품 안에는 내 친구와 내가 훔쳤던 그 뼈만 남은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처럼 깨끗하고 평온하지 않았다. 괴물의 몸은 말라붙은 피와 정체 모를 살점과 머리카락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다. 괴물은 인광을 내뿜는 눈구멍으로 나를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다. 뒤틀린 입 사이로 드러난 날카롭

고 핏빛 어린 송곳니는 나의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조롱하듯 벌어져 있었다.

그 괴물이 낄낄거리는 입을 벌려 거대한 사냥개처럼 낮고 냉소적인 울음소리를 내뱉었을 때, 나는 보았다. 괴물이 피칠갑이 된 더러운 발톱으로 잃어버린 운명의 초록빛 옥 부적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나는 그저 바보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뿐이었다. 나의 비명은 곧 히스테릭한 웃음소리로 변해 터져 나왔다.

(원문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는 본문이 아니라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 상태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이므로 번역 대상이 아니다.)